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하바쿱예언서 1:2-3; 2,2-4 제2독서 티모테오2서 1:6-8. 13-14 복음 루카 17:5-10

◎말씀 < 겸손한 믿음 >

오늘 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언뜻 보기엔 서로 연결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믿음의 힘을 강조하는 상징어(17,6-)가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보상을 바라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충실히 하라는 비유 말씀(17,7-10)이 나옵니다. 그런데, 루카 복음사가는 이 두 가르침 연결하여 사도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무화과 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도대체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산이나 바위같은 믿음이라면 몰라도 겨자씨 같은 믿음은 어찌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풀이 하면서 아무리 하찮은 믿음이라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일종의 과장법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혹은 자는 종말의 엄청난 기적에 비하면 지금의 믿음은 아주 보잘 것 없다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씨앗 자체가 중요하지 어느 것이 더 크니 작으니 비교하는 것은 인간적인 셈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따질 때 끊임없이 양으로 계산합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보시니 참 좋았다” 고 할 법한데,

인간적인 잣대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비교하는 순간 상대적이 되고 맙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누구의 믿음이 더 크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양으로 따지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실상 중요한 것은 하느님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지 인간적인 기준으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종의 처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공덕을 쌓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곧잘 하느님과 흥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일만 잘 되면...”,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등.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 같아서 주인을 신뢰하는 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기 할 바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이 비유를 사도들에게 적용하여, 보답을 바라고 사도직분을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한 사도 바오로처럼(로마 1,1; 갈라 1,10; 필립 1,1),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다하고서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0월 8일(화)	연중 제27주간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교무금 주일헌금	\$ 4,160.00 \$ 1,026.00
10월 9일(수)	연중 제27주간 수요일	오전 7시 30분	미사예물 성소후원	\$ 425.00 \$ 180.00
10월 10일(목)	연중 제27주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사회복지 성물방	\$ 370.00 \$ 45.00
10월 11일(금)	연중 제27주간 금요일	구역미사	기타수입 주일학교	\$ 3,371.28 \$ 1,220.00
10월 12일(토)	연중 제26주간 토요일	오후 5시	합 계	\$10,797.28
10월 13일(일)	연중 제28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40명 성인: 193명

교무금
봉헌자

강석만. 최응철((7-12월)신영훈. 김평옥. 서희석. 김양순(9-10월)이상인(8-9월)장호길(7-8월)이서향. 김화연(5-6월)엄희수(6월)김계숙. 이원건(8월)김선식. 장현철. 김창영. 전정옥. 임상일. 현익균(9월)윤영자 이재덕. 안강순. 박용호. 박재례. 김영숙(10월)

◎신앙생활(본당의 쇠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영적 미지근함은 삶을 무덤으로 바꿉니다” - 프란치스코교황 9월26일 산타마르타의 집 아침미사 강론중 발췌

제1독서인 하카이 예언서는 어려운 내용의 책이지만 이 책 안에서 주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당신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집(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자신들의 태도를 뒤돌아보고 변화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하카이 예언자는 패배자로 살고 있는 게으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성전은 원수들에 의해 파괴돼 잔해만 남았지만 주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이를 보내실 때까지 백성들은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쓰라렸지만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습니다. “열심히 하지 맙시다. 아마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맙시다. 그냥 이대로 지냅시다.” 그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자신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려는 주님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드라마입니다.

“예, 예, 주님, 좋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천천히 하시죠, 주님.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두시죠. 내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똑같은 말을 하며 실천을 그 다음 날로 미루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의 회심과 삶의 변화에 대한 결정을 미룹니다. 이런 영적 미지근함은 ‘무덤들의 평화’입니다.

미지근함은 종종 불확실성들 안에 숨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다음으로 미루는 태도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내면 안에서 가짜 평화와 평온을 유지함으로써 무가치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는 ‘무덤들의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지근함과 영적으로 미온적 태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삶은 무덤으로 바뀝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단지 달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우리는 망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맙시다.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에 이미 익숙해졌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삶의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변화하길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변화하길 바라시는 일이지만 잘되고 있지 않은 사소한 일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심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내일 하겠다”고 대답하며 미룹니다.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의 정신, 혹은 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되지 않도록 끊임 없이 주님께 은총을 청합시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씨앗을 뿌렸지만 적은 수확을 거둔 ‘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많은 것을 약속한 삶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마음에서 깨어나 ‘영적 삶의 달콤한 마취’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주님께 청합시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최이주.베아타 이규청.제노비아/엠모니카/신용경.그레고리오 배미성.오티리아/박모란.글라라/원헤리나.헬레나 고공자.벨라뎃다
-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서정길.아길로, 노춘영.아그네스의 영혼	김상길.마티아	생	감사미사	유정임 가브리엘라
연	허용희.루시아의 영혼	7구역	생	전정옥.율리안나의 영육간 건강	셋별Pr.

간장종지

◎참모습◎

내 이웃의 눈물 위해 무릅 꿇어 비는 일 없어도
 마음 꿇어 빌 때 나 그 때 보리라
 그대 모습을

유경환.클레멘스.시인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p> <p>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 새 생명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

민원기.시몬
양문숙.마리아 (3구역)

박상채
박덕실.글라라 (5구역)

●공동체 소식(본당의 쇠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1.목주기도 안내
일시:매일미사 30분전(목주기도 성월)
기도담당:게시판을 참조해 주세요
- 2.모임안내
구역장회의: 6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거룩한독서: 9일(수)오후7시.성당
꼬미시움 :20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 3.구역모임 및 구역미사(10구역)
일시:11일(금)오후7시.적극적인 참여바래요.
1구역(15명);추후공지
2구역(10명);20일(일)오전 Apple Hill 하이킹
5구역(19명);추후공지
6구역(15명);9일(수)오후7시.성가대방
7구역(6명);13일(일)교중미사후.마태오방
8구역(0명);20일(일)교중미사후.루가방
9구역(12명);13일(금)교중미사후.요한방
10구역(14명);11일(금)오후7시,정영규
- 4.본당 골프대회(주일학교후원 위한)
일시:13일(일)오후1시30분(Shotgun)
장소:Lincoln Hills 참가비:\$85 문의:장현철
도네이션:김용문(Shoe Bag.Tee)봉창의(Putter\$200
이종만(트로피\$400)엄유경(웨이)송돈희(RangeFinder
최응철(물비누.볼마커)이재덕(RangeFinder)이은희
(골프Case)사무라이(상품권\$100)김상범(\$100)
이서향(\$100)진엘리사(\$100)익명(\$100) 감사해요
- 5.무료건강검진(Health Fair)
일시:12일(토)오전8시-오후1시.성당
문의:김규철.레오(952-836-7117)
약품구매/행사경비마련위한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도네이션:전비아(혈당측정기외)익명(\$100)
이재덕(\$200)지정숙(\$100)익명(\$300)
St.Mary Cemetary & Funeral Center(\$200)
김양순(\$100)김기환(\$100)주동숙(\$100)
감사해요.

- 6.달력 및 후보광고 신청(2019년도)
달력 및 후보광고 신청해주세요(신청:사무실)
광고료:\$150 신청기한:10월13일(일)까지
- 7.리노공소 미사안내
일시:20일(일)성당에서 오후3시 출발
참여단체;구역부. 공소미사에 함께 해주세요.
- 8.북가주 사제회의
일시:9일(수)오전11시.트라이밸리 성당
- 9.St.Mary 천주교공동묘소 한국Section관련 안내
최종 설계도가 준비중에 있으며, 장례미사와
문상예절 관련 비용은 10월말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10%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문의:고원석.바오로(916-813-4440)
- 10.주님!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허용희.루시아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1.감사합니다(도네이션)
허용희.루시아 유가족:\$1,000(연령회)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가족캠핑 안내
일시:19일(토)오후3시-20일(일)오전10시
등록문의:허호영.렌리
주일학교 가족성가대 모집
대상:주일학교학생,학부모,청년
문의:김형일.안드레아 주일학교장
- 식사봉사(이번주);2구역 보조:신부님.국마리아
식사봉사(다음주); 보조:
●먼저인사해요(주보봉사및인사나누기);7~8구역
●예비신자 교리반:매주목요일 오후8시.데레사방
●폐 플라스틱음료병,캔 수집(친교실-청년회)
●어린이(학생) 미사시간 변경
매주 토요일 오후5시(영어미사)

화답송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전례봉사	연중27주일(10월6일)	연중28주일(10월13일)	연중29주일(10월20일)	연중29주일(10월27일)
해설	김선영.플로라	임상일.프란치스코	정미정.루시아	김은영.폴리나
제1독서	양경민.안드레아	이순자.요안나	안병훈.스테파노	양경민.안드레아
제2독서	양방림.베로니카	안강순.안젤라	안혜숙.세실리아	양방림.베로니카
복사	최진호.이상은	최준우.김규철	김규철.윤여훈	허호영.박성호
봉헌/기도/청소	7-8구역	7-8구역	7-8구역	7-8구역
헌금위원	고원석.윤재경.안강순	안병훈.박수옥.정의주	이영숙.임혜숙.이경희	전비아.류정임.나송희